

보도해명자료

('16.4.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가스 누출사고 반복에도.... 울산 파이프랙 구축
사업지지 부진 - 울산·온산 산단 배관 노후 심각한데
산업부·시·기업, 예산 떠넘기기만('16.4.5. 서울경제)

1. 기사 내용

- ① “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울산시와 배관망 사용업체가 특수목적법인(SPC)을 구성, ‘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’ 추진”
- ② “기본설계 비용 20억원에 대한 부담을 놓고 산업부인 울산시·기업체들이 서로 떠넘기는 바람에 추진이 지체된 것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☐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·배관망사용업체·유관기관 등과 함께 ‘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’을 검토해 오고 있으나,
 - 현재 특수목적법인(SPC)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며, 기본설계 비용규모와 부담주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음
- ☐ 산업통상자원부는 ‘통합파이프랙 구축사업’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, 업체 등과 협의해 해나갈 예정임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김종철 과장 (044-203-4280)
정두식 사무관 (044-203-4284)